

자동차

14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제로백 3.2초의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스타일을 자랑하는 초고성능 스포츠카 '뉴 M8 컴페티션 쿠페'.

사진제공 | BMW코리아

제로백 3.2초의 초고성능 슈퍼카 BMW 뉴 M8 컴페티션 쿠페 상륙

최고출력 625마력·최대토크 76.5kg·m ‘괴물’

BMW의 고성능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스타일을 자랑하는 초고성능 스포츠카 ‘뉴 M8 컴페티션 쿠페’와 ‘뉴 M8 컴페티션 그란 쿠페’가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됐다.

뉴 M8 컴페티션 쿠페 및 뉴 M8 컴페티션 그란 쿠페는 뉴 8시리즈만의 우아함과 BMW 고성능 ‘M’ 브랜드의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결합한 슈퍼카 수준의 초고성능 모델이다.

파워트레인은 막강하다. 최고출력 625마력, 최대토크 76.5kg·m를 발휘하는 4.4리터 M 트윈파워 터보 V8 엔진이 탑재된다. 숙련된 운전자가 아니면, 가속 페달을 밟아도 밟기 힘든 아찔한 고성능 차량이다.

BMW 모델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BMW M 엔진 특유의 고회전 특성과 폭넓은 영역에서 뿔어져 나오는 최대토크, 최신 드라이브브레이크가 탑재된 8단 M 스텝트로닉 변속기와 M xDrive 시스템의 조합을 통해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2초 만에 가속할 수 있다.

트랙에서는 더 짜릿한 주행이 가능하다. 앞좌석에는 M 스포츠 시트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짧은 코너가 연속되는 트랙에서도 몸을 단단하게 잡아준다.

또한 BMW M8 GTE 레이싱카를 개발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반영한 새시 기술, 전자제어식 서스펜션, M 서보트로닉 스티어링 시스템 등이 조화를 이뤄 한층 날카로운 핸들링 성능을 발휘한다.

여기에 액티브 M 스포츠 디퍼렌셜과 M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기본 장착돼 트랙에서도 브레이크 과열 걱정 없이 다이내믹한 주행을 즐길 수 있다.

편의 사양도 최첨단을 달린다. 어댑티브 코너링 기능이 적용된 BMW 레이저라이트와 하이빔 어시스턴트 기능이 포함된 BMW 셀렉티브 빔이 기본 탑재되며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갇힌 길을 되돌아나올 수 있는 리버싱 어시스턴트가 포함된 파킹 어시스턴트 등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가격은 뉴 M8 컴페티션 쿠페가 2억 4080만 원, 뉴 M8 컴페티션 그란 쿠페가 2억 4040만 원(부가세 포함 개별 소비세 3.5% 인하 적용)이다.

원성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 |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미래차 기술



1 2 2025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PBV 전용 전기차 플랫폼 기반의 공항 픽업용 PBV 외관 및 인테리어. 3 현대모비스의 '모드 변환 콕핏'. 4 현대트랜시스의 '다목적 모빌리티 시트 시스템'.

사진제공 | 현대차

“승객 체형에 맞게 시트가 바뀌네”

PBV 인테리어·UX 기술 첫 공개
공항 픽업 PBV 2025년 목표 개발
반응형 시트·모드변환 콕핏 눈길

현대자동차그룹이 추구하는 미래 도시의 이동 수단은 어떤 형태와 기술을 담고 있을까.

현대차는 개발 중인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테스트 벙크(차량이나 부품 등의 개발 과정에서 사용성 검증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제작하는 모형) 등 'PBV UX(사용자 경험)' 개발 방향성 및 신기술을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UX 스튜디오 서울'에서 최초로 공개했다.

목적 기반 모빌리티란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같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휴식, 물류, 상업,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이동 수단을 의미한다. 전용 플랫폼을 통해 형태와 용도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과 결합된다는 점에서 미래 모빌리티라 볼된다.

●개발 중인 '공항 픽업용 PBV' 최초 공개

현대차가 이날 PBV를 공개한 UX 스튜디오 서울은 차량 초기 콘셉트 개발을 시작으로 양산 직전의 상품성 검증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고객을 초청해 사용자경험(UX)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상품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 UX 연구개발 전용 공간이다.

이번에 전시된 엔지니어링 벙크는 2025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PBV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공항을 오가는 여행객을 실어 나르는 '공항 픽업용 PBV'를 콘셉트로 개발했다.

여행객과 사업자 모두에게 최적화된 기술을 대거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조수석 대신 캐리어 거치대를 마련했으며 트렁크 공간 대신 탑승 공간을 뒤쪽까지 넓혀 최대 다섯 명이 넓은 내부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 승객뿐만 아니라 교통 약자의 탑승 편의를 고려해 휠체어가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 폭을 극대화한 도어 시스템 등을 탑재했다.

●반응형 PBV 시트 콘셉트 등 신기술

이날 UX 스튜디오 서울에서는 현대차그룹이 고객 중심의 차량 UX를 개발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개발 결과물들이 함께 전시됐다.

먼저 현대차·기아와 미국 MIT 미디어 랩이 공동으로 개발한 '반응형 PBV 시트 콘셉트'는 시트가 승객의 몸을 알아서 감지한 뒤 체형에 맞게 시트 모양을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태우는 PBV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긴 벤치 모양의 좌석을 승객 수와 체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고도 자율주행 차량의 탑승객 편의성을 높여주는 '모드 변환 콕핏'을 선보였다. 드라이브 모드와 오퍼스 모드, 릴랙스 모드 등 세 가지 모드에 따라 조명과 시트 각도, 디스플레이

이와 조작제 등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형태의 UX로 바뀐다.

현대트랜시스는 사용자별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다목적 모빌리티 시트 시스템'을 선보였다. 교통약자를 위한 생체 신호 분석 기술, 유아를 동반한 가족 승객의 실내 공간 활용성 증대 기술 등 탑승객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실내 환경을 최적화한 10가지의 통합 시나리오 모드를 구현했다.

현대차·기아 제품통합개발담당 양희원 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객들은 더 다양하고 특별한 경험을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며 "PBV 등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에서도 고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UX 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내에서도 PBV 개발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곳은 기아다. 기아는 올해 2월 레이 1인승 밴 모델을 출시하고, 이어 5월에 니로 플러스를 선보이는 등 기존 모델을 활용한 파생 PBV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쿠팡, CJ대한통운 등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양산을 목표로 PBV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활용한 PBV 전용 모델을 개발하고,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연간 최대 15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최초 신개념 PBV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 등 2030년까지 글로벌 PBV 1위 브랜드로 자리잡는다는 계획 아래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폭스바겐코리아 사사 아스키지안 사장이 한국 시장의 본격 전동화 전환을 알리는 모델인 순수 전기 SUV ID.4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 폭스바겐코리아

사전계약 전부터 완판 소문 폭스바겐 ID.4 심상치 않네

순수 전기 SUV…'가성비' 인기 비결

폭스바겐이 선보인 첫 번째 순수 전기 SUV인 ID.4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공식 사전계약에 돌입하지도 않았는데 딜러를 통해 벌써 3500대 이상이 계약됐다. 초도 물량이 거의 완판됐다는 소문도 들린다.

흥행의 비결은 확실한 가성비에 있다. 폭스바겐은 최근 프리미엄의 대중화와 가격 파괴 전략으로 국내 시장에서 다시 호평받고 있다. 순수 전기차 ID.4가 성공하면, 디젤차만 선보인다는 지적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ID.4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최근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그먼트인 소형 SUV라는 점, 400km 이상의 여유로운 1회 충전 주행거리, 풍성한 편의사양,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는 5500만 원 이하로 가격을 책정했다는 점 등이다.

먼저 보조금을 살펴보자. 전기차 흥행 여부는 보조금 지급 여부와 직결된다. ID.4의 가격은 5490만 원으로 국비 보조금 651만 원이 전액 지원되며,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하면 4000만 원 중반대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도 넉넉하다. 82kWh의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복합 405km, 도심 426km, 고속 379km를 주행할 수 있다. 최대 충전 용량 135kW의 급속 충전을 지원해 급속 충전 시 약 36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5~80%까지 충전 가능하다.

주행 성능은 무난한 편이다. 최고출력은 150kW(204 PS)이며 31.6kg·m(310Nm)의 최대토크를 발휘한다.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는 8.5초 이내에 가속할 수 있다. 가속성능보다는 주행 거리를 늘리는 데 포커스를 뒀다. 공간은 여유롭다. 트렁크 적재 용량은 543L로, 뒷좌석 시트를 접을 시 1575L까지 늘어난다.

최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IQ.드라이브'를 탑재한 것도 매력 포인트다. 앞차와의 거리를 고려해 속도와 차로를 유지하는 '트래블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인 어시스트', '사이드 어시스트', '후방 트래픽 경고시스템', '프로액티브 탑승자 보호 시스템', '전방추돌경고 프론트 어시스트 및 긴급제동 시스템' 등이 적용됐다. 또한 주행 중 운전자가 일정 시간 반응이 없을 시 주행을 멈추고 위급상황을 알리는 '이머전시 어시스트'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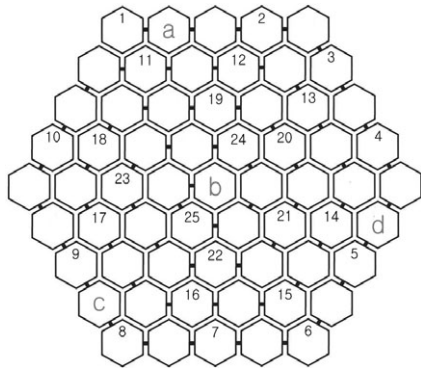
	7	5		4		1	9	
4			1					7
2				6	7			3
		6					2	
9		7				4		1
	5					7		
6			5	1				2
5					2			4
	2	1		8		6	3	

		1			2	7		
			7	8		6		
7	5				6			9
2		6		9			7	
	1	8		3		6		
	7			2		8		4
8			9				1	5
		5		1	8			
		7	2			9		

■ 스도쿠정답

9	8	6	9	8	7	1	2	5
7	1	8	2	7	9	8	6	9
2	7	6	8	1	5	7	9	9
8	9	7	7	6	2	5	1	1
1	9	7	9	2	8	7	8	6
6	2	8	1	5	7	9	7	8
8	7	5	7	9	6	8	1	2
7	8	2	9	8	1	6	9	7
9	6	1	8	7	2	5	7	8
9	8	6	9	8	2	7	1	1
7	8	2	8	1	7	9	6	9
9	1	7	7	9	6	2	8	8
7	6	8	1	2	9	8	7	9
2	9	9	8	7	8	6	1	2
8	7	1	7	6	9	9	8	2
6	2	8	9	7	1	8	9	7
1	9	9	6	8	7	7	2	8
8	7	7	2	9	8	1	9	6

■ 낱말문제



01.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 02.수심 200~1,000m의 깊이는 바다 속에서 사는 어류. 03.바닥의 구멍이 굵은 채. 04.옆으로 밀어서 열고 닫게 되어 있는 문. 05.문설주 사이의 문 밑에 가로 댄 나무. 06.화제 때 쓸 수 있게 마련한 물. 07.필요해서 사거

나 얻고자 하는 사람. 08.말 탄 사람이 스스로 고삐를 잡고 뛴. 09.오래된 물건. 10.사람을 선으로 이끌고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천사. 11.네 개의 북을 치면서 춤을 추는 고전 무용의 하나. 12.신문사에서, 무료로 나누어 주는 신문. 13.투수를 대신하여 공격을 전담하는 선수. 14.계드랑이나 오금 양쪽의 오목한 곳. 15.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발달 수준이 낮은 사람. 16.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마음. 17.정식으로 계승되어 오는 바른 계통의 자격. 18.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일. 19.봄, 여름, 가을, 겨울의 독특한 풍경을 그린 그림. 20.도덕을 지키고 받드는 마음. 21.심장이 주기적으로 줄었다 늘어났다 하

는 운동. 22.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뛰는 듯. 23.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연달아. 24.고비를 다 겪으며 심하게 고생함을 이르는 말. 25.남의 잘못·비밀을 몰래 알려버리는 짓.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a~d 칸을 이어놓으면 식물의 이름이 됩니다.

